

지역 소식통

부안군, 찾아가는 미술관 '산책하는 집' 야외전시

부안군은 전북도립미술관이 추천하는 찾아가는 미술관 '산책하는 집' 작품을 오는 8월 20일까지 부안 줄포만 노을빛정원잔디광장에서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일상 속에서 보다 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야외전시 순회전으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조형 작품을 선보여 특별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시 작품은 손민아 작가의 '산책하는 집'이다. 이 작품은 집이라는 친숙한 공간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해 현실에 떠밀려 이주를 겪는 청년 세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으며, '감요된 이주'라는 사회적 주제를 통해 지역 사회의 공감과 연대를 이끌어내고자 한 작품이다.

특히 이번 전시는 줄포만 노을빛정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현대미술 작품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관람객들에게 단순한 관람을 넘어 일상 속 사색과 휴식을 제공하는 힐링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고향사랑 기부제 특별이벤트

고창군이 제23회 고향북분자와 수박축제를 기념한 '북분자처럼 진하게! 수박처럼 시원하게!' 고향사랑기부제 특별이벤트를 오는 21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

이번 이벤트는 지역 대표 농산물 축제인 고향북분자와 수박축제를 널리 알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벤트 기간 중 고창군에 10만 원 이상 고향사랑기부를 한 기부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90명을 선정하며, 당첨자에게는 기본 담례품과 함께 고향의 대표 특산물인 수박 또는 북분자를 추가로 증정할 예정이다.

고창군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축제와 고향사랑기부제를 연계한 홍보를 강화하고, 우수 농특산물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공설 자연장지' 운영

84억원 투입 조성...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군민 장례 부담 완화 기대

부안군은 군민의 장례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해 온 공설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은 하서면 장신리 일원에 총사업비 84억원을 투입해 공설 자연장지를 조성했다.

이번 사업은 국비 28억원, 도비 6억원, 군비 50억원을 투입해 추진됐으며 증가하는 화장 수요와 자연친화적 장사문화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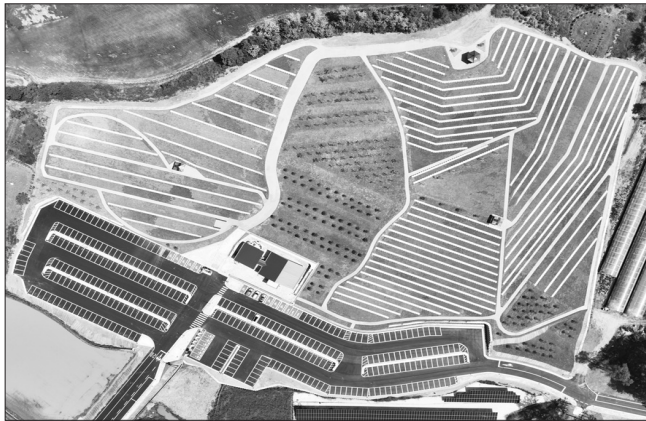
공설 자연장지는 잔디형 자연장 5500기와 수목형 자연장 1600기 등 총 7100기 규모로 조성됐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잔디 아래 또는 수목 주변에 안치하는 친환경 장례 방식이다.

사용요금은 30년 기준 잔디형 30만원, 수목형 5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주민등록상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군민이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설 자연장지 조성으로 그동안 타 지역 장사시설을 이용해야 했던 군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등용마을회를 중심으로 한 위탁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



부안군은 하서면 장신리 일원에 총사업비 84억원을 투입해 공설 자연장지를 조성했다.

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이며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만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공설 자연장지는 단순한 장사시설이 아니라 군민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장사시설"이라며 "태어남부터 노년, 그리고 삶의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군민들께서 보다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품격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설 자연장지는 장사시설 인프라 확충과 친환경 장례문화 정착을 물론 군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송령교 확장 공사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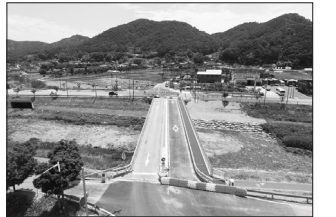
폭 5m→12m 확대... 전면 개통

정읍시가 총사업비 20억원을 들여 기존 5m였던 송령교 폭을 12m로 넓히는 확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11일 전면 개통했다.

기존 교량은 좁은 폭 탓에 마주 오는 차량이 지나치기 어려웠다. 보행로와 차도가 따로 구별되지 않아 통행 불편은 물론 안전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는 폭 7m, 길이 62.5m 규모의 합성형 라멘교를 새로 놓아 전체 폭을 12m로 늘렸다. 그 결과 양방향 통행이 가능해지면서 고질적인 병목현상이 사라져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개통으로 지난해 12월 공사를 마친 송산동 도시계획도로(순정축협에서 송령교 구간) 노선이 완전히 연결됐다.



되어지면서 지역 내 한층 매끄러운 교통망을 갖추게 됐다.

이화수 시장은 "송령교 확장 공사 준공으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덜고 더욱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며 "공사 기간 불편을 감내하며 협조해 주신 송령마을 주민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교통 기반 시설 확충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미니수박 평가회' 갖고 산업 육성 전략 공유

고창군이 10일 오후 고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고창 미니수박 평가회'를 열고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한 미니수박 산업 육성 전략을 공유했다.

평가회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고창미니수박연합회, 농축수협 기관사회단체장, 농업인회습단체장,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수박시험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평가회에서는 고창 미니수박 발전 전략을 논의하고, 각 작목반에서 생산한 품종별 미니수박의 품질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국내 1인 가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대형 수박보다 보관과 소비가 편리한 미니수박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박은 7kg 이상 대과를 떠올리지만, 고창에서는 4

kg 이하의 미니수박을 전국 최대 규모로 생산하고 있다. 주요 품종으로는 애플수박 계열인 '꼬망스', '세자'를 비롯해 보다 큰 중·소과종인 '블랙망고', '블랙보스' 등이 있다.

고창군은 소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니수박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브랜드 육성을 위해 종묘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 수박과 차별화된 토양관리·양분관리 기술 교육 등 전문 재배기술 보급에도 힘쓰고 있다.

생산자 조직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22년 지역 내 5개 작목반이 통합해 고창미니수박연합회를 결성했으며, 전국 미니수박 시장 점유율 20% 달성을 목표로 생산 기반 확대와 품질 고급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전북 유일 '공공생리대 지원' 공모 선정

7월부터 공공시설에 생리대 지급기 50대 설치

정읍시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돼 오는 7월부터 공공시설에 생리대 지급기 50대를 설치한다.

이번 사업은 시민 누구나 필요할 때 부담 없이 생리대를 쓰도록 돕는 생활

밀착형 공공 정책이다. 전국 32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에 신청한 결과 최종 12곳이 이름을 올렸다.

나머지 선정 지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은평구를 비롯해 경기도 광명시와 수원시, 충남 서천군, 대전광역시

중구, 전남 목포시, 광주광역시 북구, 경북 구미시, 경남 거창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등이다.

시는 공모 선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관내 주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수동형 지급기 30대, 자동형 지급기 20대 등 총 50대의 기기를 배치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민선 9기 군정목표·군정방침 공모

부안군은 민선9기 출범에 대비해 정회영 부군수를 단장으로 전북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선9기 출범대응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민선 9기 군정의 미래 비전을 담은 군정목표 및 군정방침 제안 공모를 지난 9일부터 오는 18일까지 1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민선 9기 군정 철학과

지역의 미래상을 반영한 군정목표와 군정방침을 발굴해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며 부안군민과 군 산하 공무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방문·우편·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민선 9기 출범대응 추진기획단을 중심으로 군정 비전과 핵심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소통행정과

부안형 기본사회, 지역경제 활성화, 풍요로운 농어촌, 문화관광, 미래산업 육성, 새만금 발전 등 민선9기 핵심 가치를 담은 다양한 의견을 군정목표와 군정방침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접수된 제안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3명을 선정해 부안사랑상품권을 시상하며 당선작은 오는 24일 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상반기 시민 정책 제안 6건 선정

정읍시가 지난 2월 6일부터 한 달여간 접수한 '2026년 상반기 시민참여 정책제안 페스티벌'에서 시민 부문 '숲속 아동 발달 센터 조성'과 공무원 부문 '태양광 이점포 설치' 등 총 6건을 우수작으로 뽑았다.

이번 공모는 일상 속 불편을 고치고 지역의 미래 성장에 필요한 창의적인 정책을 찾자 마련됐다. 관련 부서 검토와 실무 심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 채택된 6명의 수상자에게는 정읍 시장상과 함께 부상으로 정읍사랑상품권이 지급됐다.

시민 부문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

은 숲세권 도시, 정읍 '숲속 아동 발달 센터' 및 치유놀이터 조성 제안이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려상에는 △나를 찾아 떠나는 청년들을 위한 농촌여행 플랫폼 △정읍 한 달 살기생 활인구 늘리기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공무원 부문에서는 태양 에너지를 활용한 '주요 도로 LED 이점포 설치'가 우수상을 받았다. 이어 토지 지목 변경과 취득세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울인원) 서비스'와 '침수 위험 지구 내 빗물받이 표식 설치'가 장려상으로 채택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